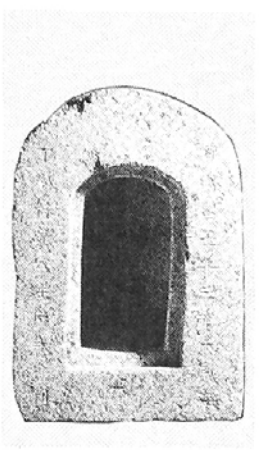


◇백제금동대향로



◇창왕명 사리감

백제금동대향로 창왕명 사리감 국보지정

지난 93년 부여 능산리에서 출토된 백제금동대향로(百濟金銅大香爐·개칭전 백제금동용봉봉래산향로)와 백제창왕명 석조사리감이 국보로 지정됐다.

문화재관리국은 지난 17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열고 백제 최고의 걸작품이자 현존하는 동아시아의 향로중 최고라는 금동대향로를 국보 제287호로 지정했다. 또 감실 앞면에 사리봉안연대(567년)와 공양자가 표시돼 있어 백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는 백제 昌王의 이름이 새겨진 석조사리감(石造舍利龕)을 국보 제288호로 지정했다.

제6회 가산학술상 공모

(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지관)이 1996년도 제6회 가산학술상을 공모한다.

불교학 진흥과 전문 연구인력 육성을 위해 해마다 실시되고 있는 가산학술상 공모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공분야 미발표 논문 초록·중장기 연구계획서 각 1부와 그동안 발표된 논문 및 저술 각 1부, 추전서 2부 및 자기소개서 1부 등을 이달 31일까지 연구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02)765-9602

'불교문화재…' 세미나

국제한국학회(회장 최준식)는 오는 31일 오후 6시30분 학회 세미나실에서 '불교문화재의 효과적인 홍보와 교육을 위한 한가지 제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연세대 국제대학원 김종명씨가 발제자로 나선다.

여주고달사 99년까지 복원

국내 최대규모의 사찰로 전해지고 있는 경기 여주 북내면 상교리 혜목산 고달사가 오는 99년까지 복원된다.

여주군은 최근 신라 경덕왕 23년(764)에 창건된 고달사를 62억원의 국비와 도비를 들여 대대적인 발굴 및 복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교사회硏 '21세기 한국불교의 이노베이션'

'무소유정신' 물질문명 극복

보시사상 사회공동의식화에 불자 앞장
평가제수립등 종단·사찰운영 혁신해야

물질로 대표되는 '소유의 문명' 시대에서 인간을 통합하고 새로운 문명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종교'이며, 특히 '무소유'의 근본정신을 지닌 불교는 조직, 인력, 사상체계 정립 등 현대물질문명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혁신을 통해 '문명의 재창조'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희식 소장(한국불교사회연구소·변호사)은 지난 16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불교사회연구소 주최 '21세기 사회변화와 한국불교의 이노베이션' 세미나에서 '두 개의 정신·두 개의 사회·두 개의 문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불교의 교리, 지식화, 정보화, 사회참여 등을 폭넓게 언급하면서 '보시의 질서'를 통한 '호혜의 원리'가 보편적인 사회원리로 작용될 수 있도록 모든 불교인이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소장의 이와 같은 주장은 근대 소유의 문명에서 보편화되었던 삶의 양식에서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문명을 찾아야 '무소유'의 삶의 양식이 떠오를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즉 물질문명의 소산인 '소유의 문명'은 점차 붕괴되고 있으며, 인간은 새로운 문명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대사회에서 점차 그 위치와 위상을 확보해가고 있는 제3섹터(the third Secter·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나 비영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통칭)의 개념을 2천5백년 전부터 실천해 온 불교야말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로 자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왜냐하면 승가의 삶 자체가 바로 제3섹터적 삶의 극단적 전형이자 '무소유' 삶의 표본이며, '이타적 삶'의 문명을 갈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진정한 보살도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문명창조를 위해 불교의 '무소유정신'이 보편적 사회원리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불교가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회참여를 지양한 문화창조적 사회참여와 생명공양실천운동본부와 같은 제3섹터의 영역확장, 불교교리·문화에 대한 지식 정보화, 불교도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조직망 건설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송소장은 주장했다.

노부호 교수(서강대 경영학과)는 '21세기와 경영혁신:학습조직으로의 전환' 주제발표에서 미래에는 종교조직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치 못하면 더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한국불교의 비전인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대명제 아래 승려들의 의식개혁, 종단과 사찰운영, 승려교육과 평가 등 광범위한 조직혁신을 통해 지식, 정보기술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불교는 양적인 세력확장이 아닌 종교 본연의 가치에 충실함으로써 힘을 얻는 질적 전환의 시기에 서 있는만큼 △중앙종단과 교구본·말사간의 행정체계 미흡 △비영리단체의 비효율적 운영 △승려의 자질부족 △사찰재정운영의 불합리 △정보기술의 낙후 등의 문제점 해결을 통해 비젼을 이끌 전략적 과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교수는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종정의 실질적 권한강화를 통한 정신적 지도자化 △복수추천 후 불교대표기구에서 최종 임명하는 총무원장 간선제 △종단운영평가를 위한 재가불자중심의 경영자문단 운영 △사찰간 TQM(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경영우수 평가)경진대회 등을 제안해 주목을 끌었다.

한명우 기자

각종 수행관 집중조명
'청호불교논집' 1집 나와

원시불교의 사념처(四念處) 수행에서부터 화엄, 유가유식(瑜伽唯識), 천태, 밀교 등의 수행관을 집중적으로 다룬 논집이 나왔다.

불교사상연구 보급을 통해 우리의 정신문화 고취와 불교문화를 창달한다는 취지로 최근 (재)청호불교문화원(회장 이종대)이 펴낸 〈청호불교논집〉 제1집이 그것.

이번 논집에는 '원시불교의 사념처 수행에 대하여'(최봉수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아비달마 불교의 수행론'(권오민교수·경상대) '종교적 회심과정(回心過程)으로서의 반야공변증법(般若空辨證法)'(김용표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등 모두 8편의 논문이 실려있다.

백양사

사천왕문

靈山會上言雖普
(영산회상언수보)
小室峰前句未親
(소실봉전구미친)
瑞艸夢茸含月色
(서초몽용함월색)
寒松翁鬱出雲霄
(한송옹울출운소)

영산회상 부처님 하신 말씀 비록 많지만
달마대사 전한 뜻은 말 밖에 있네
우거진 상서로운 풀이 달빛을 머금으니
울창한 곧은 솔은 구름 밖에 솟구쳤네

해설 백양사는 최근 조계종의 총림으로 지정된 사찰이다. 조계종 제 18교구 본사이며 네번째 총림이 된 백양사는 백제 무왕 33년(632)에 여환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백양사의 총림 이름은 고불총림이다. 총림이란 잘 알다시피 선원 율원 강원 염불원 등 전통 수행원이 골고루 갖춰진 곳을 의미하며 총림의 지도자를 방장(方丈)이라고 한다.

대부분 사찰의 사천왕문에는 사천왕의 위신력을 찬탄하는 내용의 주련이 걸린다. 그런데 백양사 사천왕문의 주련은 매우 선적인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첫 구절과 두번째 구절은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수많은 설법을 하였지만 달마는 한 마디의 말도 없이 오직 마음으로 그 뜻을 전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선종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목이기도 하다. 선종에서는 문자를 거부한다. 선의 세계에서는 마음의 문제를 중요시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데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이다. 두번째 구절에서 소실은 달마대사가 9년간 면벽한 곳을 말한다. 달마가 전한 뜻이 말 밖에 있다는 것이 언어의 세계를 초월한 곳에서 진리를 전한 것을 의미한다면 세번째와 네번째 구절의 의미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상서로운 풀더미에 달빛이 머금어진 모습이란 선의 경지에 이른 것을 매우 서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은 선의 경지에 들어가면 한마디 말이 없어도 영산회상의 모든 말씀이 잡초 속에 우뚝 솟은 울창한 소나무처럼 그 뜻이 마음에 와 닿는다는 의미로 풀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의 운소는 하늘을 뜻한다.

〈안동 경안중 교사〉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佛法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사명대사 '禪敎觀' 바탕 호국활동
불교민속 사회적 대동의식 지향

이봉춘교수 · 진철승씨

한국불교학회·역사민속학회 세미나

사명대사 유정스님의 호국활동은 선교관(禪敎觀)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불교민속신앙은 대동의식을 바탕으로한 인간다운 삶을 꾸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각각 제기됐다.

이봉춘교수(동국대)는 지난 11일 한국불교학회가 주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으로 용맹을 떨쳤던 사명대사 유정스님의 호국활동은 선교관(禪敎觀)이 함께 바탕을 이루고 있었으며, 특히 對敵행위 때에는 神的 기미(機微)가 그대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유정의 수학(修學)은 선 우위적이면서도 선과 교를 병행했으나 결국 선중심적이었으며, 임제종풍과 종지를 천명하고 있는 유정의 호국행적이 보여준 강렬한 실천성과 스님이 대적행위에서 보여준 즉물대응적(卽物對應的) 현실성과 윤리성, 용맹과 결단성 등의 근본은 이와 같은 스님의 선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유정의 교학사상은 법화·화엄·미타정토사상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특히 화엄의 무진법계연기사상이 교관의 핵심사상이라고 덧붙였다.

진철승씨(불교문화교육연구소 연수실장)는 지난 18일 한국역사민속학회 제43차 월례발표회에서 '민속과 불교신앙-세시풍속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불교와 밀접한 민속신앙을 소개하면서 이들 민속신앙은 사회적 대동의식을 바탕으로 인간다운 삶을 꾸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현시대에도 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씨는 불교와 민간의 세시풍속으로 사월 초파일과 칠월 백중, 팔관회, 정월의 풍속인 마을굿과 연말연시 절 입구의 서낭이나 장승 앞에서 행하는 원앙재나 성황제 등을 불교민속신앙으로 소개했다. 〈우〉

카오스이론 화엄사상과 일치

노벨상수상 프리고진박사 이대서 강연



◇일리야 프리고진 박사

현대 과학의 역할은 산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도시를 맑게 하는 것이며,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일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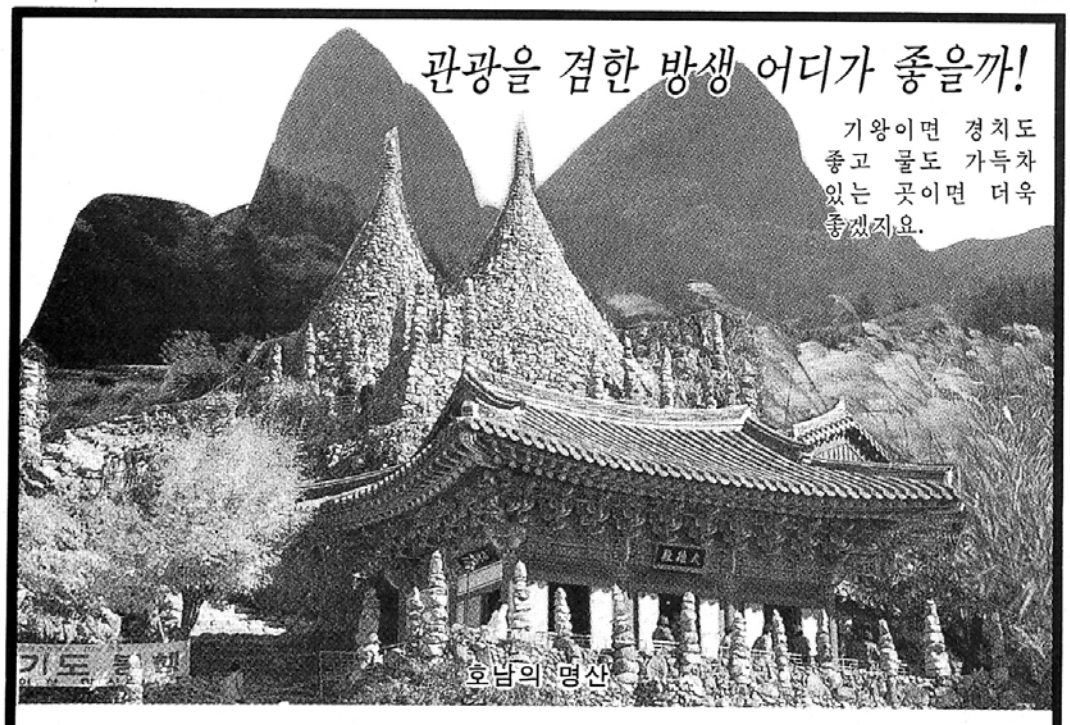
카오스(chaos, 混沌)이론의 창시자이자 77년 노벨화학상을 받은 과학자이자 사상가인 일리야 프리고진 박사는 지난 22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카오스: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초청강연회에서 현대 자연과학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결정론적(決定論的)이고 시간 가역적(可逆的)인 자연 법칙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개인과 사회 '조화' 강조한 '공존화합' 기본틀

카오스 이론이란 지금까지 받아들여져온 초기조건이 결정되면 미래예측이 가능하다는 결정론적 자연법칙과는 달리 초기조건의 차이가 거의 없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미래의 궤적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카오스 이론은 과학의 세계정복이 아닌 예측키 어려운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를 위한 공존과 화합에 그 기본틀을 두고 있다는 것이 프리고진 박사의 설명이다. 그렇기에 과학은 이 세계의 한 부분이며 세계속에서 조화를 이룰 때 예측키 어려운 문명을 올바로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카오스 이론은 모든 것을 전체 속의 부분으로 보는 인식에서 출발한 불교의 화엄사상과 일치하는 특색을 지닌다. 개인과 사회가 서로 끊임없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사상과 다를 바 없으며, 화엄불교는 이미 카오스 이론의 근본원리를 꿰뚫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프리고진 박사는 카오스 이론은 자연탐구의 결과로 인간이 神이 될 수 있다는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이론에 맞서 자연과 과학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문명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 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 길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 (0655)33-2900,0303
32-0652,0072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않는"

◎ 바라밀 쑥뜸기 구입시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금강경 신탑 다라니 1매씩을 같이 드립니다.
◎ 전국 시, 군 단위로 바라밀 쑥뜸기를 보급할 분을 찾습니다.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낳고자 별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쑥뜸을 먼저 떠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에가 많기 때문입니다.



1)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쑥만을 엄선하여 쑥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한번에 영묘한 쑥의 약효를 몸속으로 많이 침투시키기 위해 뜸쑥기등을 크게 만들어 뜨도록 되어있다.(재래식 뜸쑥의 50배 이상되는 크기)
2)한약재와 곡물과 경면주사등으로 만든 쑥뜸 링받침과 이것을 받칠수 있는 또하나의 받침대 2종류를 사용하여, 뜨거움을 본인이 조절함으로서 흉터가 생기지 않고 살갗에 직접뜨는 쑥뜸보다 질병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3)쑥뜸은 쑥을 태울때 생기는 쑥엑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쑥뜸에서는 쑥엑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땀구멍)속으로 흡수시켜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거기에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건강요법



쑥뜸기 내용
1)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셋트화(강화약쑥 약 2개월분 포함)
2)쑥뜸 도구 일체 반영구적
3)쑥뜸기 한셋트로 전가족이 사용
4)노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는 제일입니다.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쑥뜸기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구입문의및 상담 :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본원: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5동5층)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각광 스님)
● 무실 :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 전화: (051)864-3740
본회: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3층) 성지관음회
● 전화 :(0335)34-9490, 39-1906
마산/ (0342)706-3060

서울강남지회:(02)597-7581
서울강북지회:(02)747-7033
부산지회:(051)516-2713(지장정사)
대구지회:(053)323-2598
대전지회:(042)222-4936
광주지회:(062)228-8544
제주지회:(064)22-3324
경기수원남부지회:(0331)291-8549
경남진주산청지회:(0596)73-0039
경남마산지회:(0551)23-9016
경남울산지회:(0522)74-7536
창원지회:(0551)62-0076
제천단양지회:(0443)46-3023
의정부지회:(0351)873-0532
경주지회:(0561)772-3255